



## 대천사들은 실존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축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대천사의 이름을 명시하고, ‘현존’하는 존재임을 밝힙니다. 특히 가브리엘과 미카엘, 라파엘 천사의 이야기는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는데요.

대천사 이름은 ‘누가 하느님 같으랴’란 의미의 “미카엘”, ‘하느님의 사람 · 영웅 · 힘’이란 뜻의 “가브리엘”, 그리고 ‘하느님이 고쳐 주셨다’는 의미의 라파엘입니다.

천사 공경의 기원은 4세기 동방 교회가 미카엘 대천사를 공경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천사는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하느님 어전에 서 있는 하느님 곁의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고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의 도우미 역할을 담당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천사들의 중개와 도움을 간청하며 공경할 것을 가르치지만 천사들이 천국 상속자들에게 봉사할 ‘영’임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땅에서 공경의 대상일 뿐,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니기에 결국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우리가 천사의 공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히브 2,5-9 참조).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얼마나 높고 귀한지 느껴지지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따른 ‘대천사 성 미카엘 발현’을 기념하여 5월 8일에 축제를 지내던 교회는 1961년부터 로마의 성 미카엘 성당 봉헌 기념일인 9월 29일에 맞추어 ‘성 미카엘 · 가브리엘 · 라파엘 대천사 축일’을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주님은 나의 희망

(시편 71편, 5-8. 17-19)

###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92장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의 믿음은 당신께 있나이다.  
- 보호자이신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71편 5절에서 8절,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71, 5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 6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 7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기적과 같았으며  
당신은 저의 굳센 피신처이셨습니다.
- 8 저의 입은 온종일 당신 찬양으로,  
당신 영광의 찬미로 가득 찼습니다.
- 17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 18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느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의 위력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 19 하느님, 당신의 의로움은 하늘까지 닿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신 당신  
하느님,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총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은총을 마련해 두셨고, 지금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돼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나 자신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는 상관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었다고 착각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다 보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일들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총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92장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 바위산에 핀 수정꽃 |

- 주교좌 양덕동본당 1구역 1반 반장 조숙희(울리아) -

동마산의 중심 양덕동에 위치한 양덕동본당은 남성동본당에서 1975년 12월 8일 분리되어 가톨릭 여성회관의 일부를 빌려 성당으로 사용하면서 성전 건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라츠교구와 교구청, 독일교회 기관, 오스트리아 부인회의 도움과 신자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1978년 성전을 완공하였고, 1979년 주교좌로 승격되었습니다. 본당 설립 당시 주변이 바위산 투성이의 허허벌판이었던 터라 건축을 맡았던故 김수근 씨는 성당이 완공된 후 ‘바위산에 핀 수정꽃’이라는 말로 감회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설립 당시 신자 수는 650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주소 확인 세대 2,203세대, 미사참례자는 700~800명 정도입니다. 현재 5개 구역, 28개 소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수요일 소공동체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한 화해와 쇄신연수를 2015년 부터 2년간 8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선교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경 통독반 및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선교를 해나가고 있으며, 굿뉴스 홈페이지에서는 성경 이어쓰기를 7회 이상 완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의 영성생활을 풍요롭게 이끌어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반은 낮 반과 저녁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에만 모임을 가졌으나 직장인들을 배려한 저녁 반도 만들어 낮 주부반에는 10명, 저녁 직장인 반에는 15명이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은 함께 모이는데 지난 6월에는 야외에서 합동 반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반은 50대 후반부터 95세까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95세 심분남(소피아) 어르신은 걸어 다니는 성경이십니다. 복음 나누기를 할 때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피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족한 저희는 어르신으로부터 많이 배우곤 합니다.

예수성심을 주보로 모신 저희 본당 형제자매들은 교육으로 다져진 깊은 신심 때문인지 모두가 적극적이고 의욕에 넘쳐 있습니다. 예수성심이여, 당신의 지극한 사랑으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아멘.

